

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, 영농기 대비 `시설점검. 물절약 홍보`

[이재영]



↑ ↑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4월부터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점검과 물절약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(사진 제공 :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)© CBN뉴스 - 경주

[cbn뉴스=이재영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(지사장 박기철)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4월부터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점검과 물절약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.

최근 가뭄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주지사는 저수지, 양·배수장, 용수로 등 주요 수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힘쓰고 있다.

또한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활 속 물절약 실천과 효율적인 농업용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.

박기철 지사장은 "농업용수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꼭 필요한 자원"이라며 "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현장관리를 통해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고 물절약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